공천 등 중앙당이 좌지우지…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3〉지방 아젠다가 없다

온통 중앙이슈만이 도배
수도권 등 격전지 중심 선거
호남·TK 40년 독점체제
되레 지역 쇠락 부추겨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에서 공천하면 바로 당선인데, 뭐하러 동네 돌아다니며 주민들 만나겠습니까? 선거 유세때나 반짝하겠지요." - 광주 광산구 50대 중반의 약사

#"교육감은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뭐했던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아이들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라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요. 교육감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광주 동구 60대 중반 은퇴자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은 없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견제 등의 이슈에 휩쓸리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분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제시한 정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게 재정, 건설교통, 과학기술 등 각 부문별로 엮은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각 지역별 중요 사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 지역 인재들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정당 공천 배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6·1 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의 분위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우려할 만큼 지역민의 관심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3명,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은 선거권 자체가 박탈된데다 30년 이상 한 정당이 지역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 역시 매우 좁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전국 판세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미 안정권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소홀히 하고, 격전지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여야가 선심성 정책·사업을 대거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지방선거는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를 오히려 키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각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검증 안 된 공약 역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이 임기 내에 불가능하거나 권한에 벗어난 내용까지 버젓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갈등·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까지 포함돼 공약 자체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상당하다. 동네, 자치구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선거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중앙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방선거의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김지선(여·37)씨는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공약을 살펴봐도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직선의 취지인 '교육 자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각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2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선거와 관련 선출직의 범위, 선출 방식, 후보 공천 등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방권력의 변화 없이 40년 이상 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호남과 대구·경북이 마치 중앙당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같다"며 "거대 양당이 1번과 2번을 독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계속해온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색을 탈피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정치의 산물처럼 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와 분권마저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독사 예방 캠페인

광주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남구청사 앞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세요'란 주제로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국비 100억 확보

'마이크로LED디스플레이·사이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박차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도, 한국광기술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마이크로LED디스플레이 산업화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뉴딜,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사이니지 산업 인프라 및 기반구축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사이니지는 영단어 사인(sign)에서 파생한 것으로 표지판처럼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시각적 구조물을 통칭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 등은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43억원을 투입해 지역 광융합기업의 마이크로LED 사이니지산업 진입을 위한 '협력거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150~70㎛급 LED가 적용되는 디지털사이니지, 투명사이니지 등 마이크로LED 사이니지 양산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공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협력거점센터 구축으로 지역내 광원, 패키지, 모듈 광융합 관련 중소기업이 초대형, 고밀도, 투명 및 유연화가 가능한 첨단 마이크로LED 사이니지산업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화소 및 조립, 모듈 공정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사업영역 전환·확대 지원으로 광융합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관광지 지역 대표 수제맥주 인기

여수 밤바다·구례 산수유·담양 죽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을 떠오르게 하는 대표 수제맥주가 주요 관광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 중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 가면 꼭 먹어봐야할 맥주로 ㈜구례양조의 '여수밤바다 위트에일'과 '여수밤바다 동백에일'이 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에 있는 ㈜구례양조는 지역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원료로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 6종의 수제맥주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여수밤바다 위트에일'은 여수지역 GS25 편의점 69곳과 호텔, 관광상품 판매점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여수밤바다 동백에일'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지역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여수밤바다 위트에일'은 맥아와 홉 사용량을 높이고 맥주 발효원액에 물을 넣지 않고 발효해 농도 그대로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여수밤바다 동백에일'은 여수의 특산물인 동백꽃잎을 원료로 사용한 유럽방식의 에일 맥주다.

지리산과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장 구례에 가면 100% 구례산 산수유를 사용해 만든 '구례 산수유 맥주'와 '구례 마일드' 등이 있다. 풍부한 과실 향과 부드럽고 상큼한 맛이 나며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로 유명한 담양에도 꼭 먹어봐야할 맥주가 있다. 바로 담주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죽순과 댓잎, 친환경쌀 등을 사용해 제조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 '담주브로이' 맥주 6종이다.

담양에 소재한 '담주브로이' 직영점과 특산물판매장, 식당 등을 비롯해 전남지역 맥주펍 등에서도 판매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지정 병상 2만656개 해제

5주새 70%…광주 528개 줄어

확진자 수 감소세와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상당수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이 해제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병상 2만656개를 지정 해제했다. 광주도 748병상이던 코로나19 지정병상이 220병상으로 줄었다.

중대본은 하반기로 예상되는 재유행 때는 전국 7개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병상으로 지정했던 중증·준중증 병상 1653개, 중등증 병상 1만 9003개 등 2만656개 병상을 지정 해제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병상이 2만 9000여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5주새 약 70%가 코로나19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행 규모와 병상 가동률,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병상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거점보유병상 중심으로 유지하고, 중등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로 대응하는 것이 조정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814명, 전남 946명 등 전국적으로 2만 3956명을 기록했다. 수요일 기준 16주만에 2만명대로 떨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